12강 독일과 이탈리아 고딕

1교시 독일 지역 양식과 후기 고딕

▲ 13세기- 슈트라스부르크 성당과 쾰른 성당

슈트라스부르크와 쾰른 성당. 이 독일 고딕은 크게 보아서 프랑스에서 완성된 국제주의 양식을 수입하는 문제와 자국의 지역 전통을 지키는 문제. 저것은 어느 시대때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이 둘 사이가 일정한 통합으로 나타났는데, 독일에서는 따로 간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13세기 때 슈트라스부르크와 쾰른에서 프랑스의 표준양식을 통째로 수입하여 지은. 이런 경향들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슈트라스부르크, 특히 이 도시는 프랑스와의 지리적 인접성. 지금은 프랑스 땅이야. 불어식 발음으로 끝에 자음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슈트라스부르'라고 불러. 독일 땅일 때에는 슈트라스부르크라고 부르고. 나치 때에는 독일영토였다가 독일이 패하면서 다시 프랑스가 되찾고 그러는.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야. 굉장히 독특한 도시인데. 그 전에도 이쪽 왔다갔다 무지 많이 했던 도시이죠.

슈트라스부르크 성당도 매우 웅장한 성당으로, 독일 내에서 슈트라스부르크, 쾰른, 울른 해서 굉장히 큰 성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두주자였다는 얘기이죠. 거의 프랑스 쪽에서 보면 자기네 양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리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프랑스 대표양식이 통째로 수입되어 지어진 예에 해당이 된다.

높이가 32m 폭은 36m. 그래서 높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고, 수평비례를 유지하는. 이것은 광활한 공간을 선호하던 독일 로마네스크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일단 크게 보면 프랑스 대표양식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중에 무엇을 모델로 삼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슈트라스부르크는 성 디오니시오의 후기 고딕 양식을 많이 모방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진 대응 기둥, 2차원 면 개념으로 처리된 네이브 월, 그림 999에 잘 나타나있고요. 유리로 처리된 트리포리엄, 창 분할 트레이서리 등이 다 생드니에 나타난 후기 고딕 혹은 레요낭 양식을 모방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델로 삼은 생 드니가 후기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순도로 보면 성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후기 양식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은 순도 높은 원형보다는 당시의 최신 유행 양식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선호하였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성 디오니시오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5-10년 정도의 시차를 두면서, 성 디오니시오가 새로 하나 지으면 그것을 또 따라 짓고 하면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슷한 속도로 따라 진행하면서 가장 최신 경향을 모방하여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럽 내부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가 등장한단 얘기에요. 어느 나라에서 신 양식을 먼저 완성시킨다면 그것을 수입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건축뿐만 아니라 패션도 그러하고. 누가누가 먼저 최신 양식을 가져오느냐의 시차문제가 여기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기 양식과 후기 양식 사이의 정밀한 구별이 무의미해졌고 최신 유행이 모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뭐 거의 프랑스 양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직설적인 모방이였구요.

그 다음에 파사드는 성 우르바노. 그래서 생 드니의 실내 네이브 월과 성 우르바노의 파사드. 둘 다 레요낭 양식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은 무의미해지고.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선례 모델을 따와서 혼합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례 모델을 수입하는 양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성 우르바노의 파사드는 성 우르바노의 실내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데, 최신 유행 경향을 수입하느라 이 유기성과 관계없이 혼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슈트라스부르크의 설립시기를 보면, 파사드가 더 나중에 지어졌는데. 이때가 되면 생 드니는 이미 철지난 건물이 되어버리고, 파사드를 지을 때에는 파사드 중에 가장 최신 양식이 성 우르바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우르바노에서 따온 내용을 보면, 트레이서리를 격자 창살로 응용하면서, 레요낭 양식 중에 격자창살이 더 두드러지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1002]인데요. 거기 보면 특히 가운데 포탈 대 출입문의 삼각 박공을 보면 수직 트레이서 바들이 굉장히 가느다란, 나무젓가락 비례 정도의 분할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독일에 나타난 어휘들을 마치 악기 하프의 줄을 이어놓은 것 같다고 하여 트레이서리 하프라고 불러. 이것은 디테일로 본 것이고. 전체의 분위기를 보자면 [그림 1000]. 입면도 보면 트레이서리를 수직 비례로 나누어 쓴 것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슈트라스부르크가 독일의 고딕 양식으로 첫 스타트를 끊은, 그러면서 첫 스타트 치고는 완성된 양식을 통째로 수입한 것이 두드러진다는 얘기죠. 보통 첫 번째 건물은 고민이라든가 시행착오를 겪어 엉성하거나 규모가 작거나 완성도가 낮거나 하는 첫 단추를 꿰는 고민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독일에서는 완성된 양식을 완성도 높게 통째로 수입하면서 독일 고딕이 시작되었단 얘기고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 다음으로 이어지 게 쾰른 대성당이죠. 쾰른은 앞에서 보았지만 로마네스크 전통이 강한 도시여서 고딕건축을 받아들이는데 내부적으로 많이 주저했어요. 그런데 당시 쾰른은 독일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교황청, 신성로마제국, 프랑스, 이 세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하는 입장.

독일은 위치가 절묘하여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0개쯤 되었어요. 중국과 함께, 많은 수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중국이야 워낙 대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독일은 대륙하나를 통째로 차지할 만큼 큰 나라가 아닌데도 참 묘하죠.

라인강 쪽으로는 서유럽을 항상 상대해야하고, 동쪽으로 오게 되면 동유럽까지 상대해야해. 우리가 지금 유럽을 서유럽중심으로만 알고 있지만, 동유럽도 헝가리니 합스부르크왕조까지 야만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을 상대해야하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독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국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시마다 각각 다른 나라였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정도로. 그래서 쾰른 자체가 하나의 도시국가로서. 꼭 독일을 대표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성로마제국이었던 당시 이것도 하나의 더 큰 나라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양식이자 로마 교황청에서 밀었던 프랑스 고딕 양식을 수입해요. 그리고 쾰른 자체 내에서도 주도 세력들이 로마네스크 때의 세력에서 많이 교체되면서 로마네스크 때 지었던 웅장한 교회들을 쾰른 성당이 능가하고 싶은 내부적인 경쟁도 있었고, 슈트라스부르크와의 경쟁 관계도 있었어요.

쾰른 성당은 카롤링거 왕조 때에 처음 지어졌고 오토 왕조때 증축되었지만, 그 이후 성기 로마네스크를 거치면서 쾰른 성당은 소규모로 계속 남았고 앞에서 보았던 여러 건물들이 더 크게 지어지는. 그러면서 주교성당으로서의 쾰른의 최면이 말이 아닌 것이 되었고.

거기에 슈트라스부르크와의 경쟁도 한 몫 하면서 욕심이 커가면서 고딕 양식의 종주국인 프랑스마저도 누르고 싶은 욕망. 그래서 상당히 슈트라스부르크와 쾰른의 규모는 당시 수직높이를 가지고 경쟁하던 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죠. 그리고 배경으로서 단순히 높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장 큰 규모를 목표로 삼아 1248년에 착공했지만 실질적 공사는 13세기 후반에서 되어야 시작되었고 1322년에 주요 부문이 봉헌돼서 한 90%이상 완공되었다가 온전히 완공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어요.

쾰른 성당은 아미앵 성당과 생트샤펠을 모델로 삼았단 얘기죠. 슈트라스부르크는 최신유행을 모델로 삼았는데 이 쾰른은 아미앵은 고딕건축의 완성점. 그다음 생트샤펠은 파리의 왕립예배당으로서의 상징성을 갖죠. 루브르 옆 파리 심장부에 버티면서 건축적 중요성보다는 다른 상징성을 갖는 건물인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이런 것을 모델로 삼은 것에서부터 쾰른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야심 같은 것을 읽을 수 있고, 이 내용들이 앞에 설명했던 당시 독일 신성로마제국에서 쾰른의 위치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높이로 그것을 이끈 건물 중 하나죠. 무려 천장고가 46m, 첨탑은 152m로 슈트라스부르크보다 10m 정도 더 높았어요. 천장 얘기도 앞에 나왔었고. 43m의 아미앵보다 3m더 높았지만 아미앵을 모델로 하여 상당히 뒤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미앵의 내용이 나타난 부분을 보면 네이브 월에서 대응기둥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끊기지 않고 올라간 점. 차이는 천측창의 높이 비율이 아미앵보다 커지면서 아케이드와 거의 같아진 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렇게 13세기에 슈트라스부르크와 쾰른이 라인란트 지역의 고딕 건축을 대표하는 예인 동시에 프랑스 고딕을 모방한 대표적인 예였고. 이런 영향을 받은 예들이 60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시작은 이렇게 했고요.

▲ 독일 전통, 지역 양식, 후기 고딕

반면에 독일건축의 다수의 건물들은 이런 독일의 지역전통이 강하게 가미된 독특한 예들을 다수의 건물들이 차지했단 얘기에요. 그 중에서 시토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단 얘기가 60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특히 리브, 리브를 중심으로 한 장식 경향. 이것이 독일만의 고딕건축의 대표적 특징이었다는 얘기죠. 13세기를 이 두 건물이 열었다면 14세기 독일 건축의 전성기에서는 리브 장식을 독일만의 지역적 특징이 나타난 예들이 14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단 얘기에요.

그래서 자잘한 공국들로 많이 나뉘었었단 얘기 했었고요. 프랑스는 예를 들어서, 지역 양식이라는 것이 로마네스크 때에는 부르고뉴와 노르망디라는 두 대표적인 경향이 있었고, 고딕은 일드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표양식, 이것에 대비하여 부르주라든가 소형화 경향. 이정도가 지역경향으로 미미한 편이었는데.

이 독일은 지역별로 다양한 고딕건축의 예들이 나타난단 얘기에요. 지금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런던과 파리로의 집중이 심하지. 프랑스도 우리나라랑 비슷해. 두 번째 도시가 리옹인데, 규모차이가 있어 파리로 집중도가 심하다고.

그런데 독일은 베를린이 수도이지만 베를린으로의 집중도가 훨씬 약해. 프랑크푸르트, 쾰른, 슈투트가르트, 뮌헨과 같은 지방도시들이 베를린을 능가하거나 맞먹는 정도로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죠. 정치체계도 연방이죠. 이게 오래된 공국 전통에서 온 것이고.

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접하게 되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다양한 지역문화가 독일로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독일은 자국 전통과 풍습에 맞는 자유분방한 방향으로 갔고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래서 리브를 이용한 장식 경향을 보여주는 예들이 [그림1019부터 1022]까지요. 영국에서도 리브 장식이 많이 유행했는데, 영국은 기하패턴으로 많이 나타난 데 비하여 독일에서는 공예적인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는 차이가 있어요. 영국도 부분적으로 리브 이외에 벽지 장식 같은 꽃 그림 같은 것을 많이 그렸는데, 독일은 그게 더 심하지요.

정치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더라도 독일에서는 주교의 독립성이 강했다. 프랑스는 로마 교황청에서 주교를 임명했는데 독일에서는 황제나 왕이 임명을 하면서 지역기독교가 융성했던 곳이고 이런 전통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되기도 했죠.

▲ 중앙집중형 홀 교회

이렇게 나타나는 다양한 예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지역전통의 대표적인 예로 중앙 집중형 홀 교회라는 것을 들 수 있어요. 홀 교회는 앞에서 나왔었어. 홀 교회의 특징은 네이브와 아일 사이에 천장 높이가 같은 그러면서 네이브 월이 1단구성. 단순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보통은 홀 교회가 선형공간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이것이 중앙 집중형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예들이고. 이것을 둘이 합쳐서 중앙 집중형 홀 교회라고 불러.

대표적인 예가 트리어에 있는 성모 마리아 교회. [그림 1031]이 평면이에요. 정말 독특해 거의 공처럼 생긴 건물이야. 외관은 [그림1030]이고. 이 1031은 보면, 몇 단계의 증식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십자가 형태. 그릭 크로스형. 실내를 보면, 분리형 그릭 크로스형 1단계. 2단계는 끝을 동그랗게. 3단계는 여길 확장한 후 동그랗게 하고, 여기를 채우고. 이렇게 몇 단계의 증식과정을 거쳤고. 어쨌든 시작부터가 그릭 크로스 자체가 중앙집중형 평면 형태이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했고 그 결과 상당히 다양한 여러 겹의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얘기에요. 한 두겹 내지 세겹 정도의. 실제 들어가면 거기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그림1032-1036]까지요. 실제로도 보면 공간의 겹수가 많이 나타나.

그 다음에 기둥체계. 기둥체계도 보면, 세 번의 증식과정에 따라서. 이 세 겹 공간은 공간의 위계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기둥체계가, 코어를 이루는 기둥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면 두 번째 단계를 이루는 기둥이 있고. 마지막으로 외벽에 접한 세 번째 단계의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에 대한 설명이 617페이지에 나타나있고요. 중심 크로싱의 네 귀퉁이를 담당하는 기둥은 프랑스 고딕의 필리에 캉토네 방식. 그다음 중심기둥과 외벽사이의 중간에 세워진 기둥은 단일 원형기둥. 그러니까 중심 크로싱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굵은, 필리에 캉토네를 갖는 대응기둥을 거느렸다는 얘기고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중간에 세워지는 기둥은 대응 기둥 없이 단일 원형 기둥. 위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굵기는 중심기둥에서 대응기둥을 떼어내고 남은 코어기둥 정도. 마지막으로 외벽에 세워진 기둥은 세 개의 대응 기둥 다발. 이렇게 되고.

그게 한 눈에 드러나는 게 어디 있냐면, 일단 평면을 보면요 [그림1031]. 거기 보면 제일 중심부의 정사각형을 이루는 기둥이 가장 두껍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대응기둥이 네 방향으로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그 옆의 기둥은 점 하나. 그러니까 대응기둥 없이. 그리고 외벽은 다시 대응기둥 세 개.

그 장면이 [그림1033]이에요. 오른쪽에 약간 옆으로 넘어진 듯한 기둥 이것이 제일 중심에 있는 기둥이에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기둥. 이것이 코어기둥에 대응 기둥이 네 개가 붙어있는 게 보여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둥. 옆에 기둥이 단일원형기둥인 것이 보여. 그 다음 마지막 벽에 달라붙어 있는 기둥을 보면 다시 대응기둥 다발로 되어있어. 이런식으로 독특한 처리가 되어있고요.

그런데 천장 높이를 보면 617페이지에. 천장높이를 보면 아일보다 중심보다 조금 더 높아. 크로싱 중심부가. 그리고 그릭 크로스의 팔 부분이 옆 부분보다 조금 높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홀교회는 아닌데. 그러나 기둥 굵기에 비하여 진공부가 훨씬 넓고 예배당 외벽에서 들어오는 빛이 팔 부분까지 직접 미치기 때문에 공간 분위기는 거의 홀 교회에 근접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예는 [그림1040]의 슈베비쉬그뮌트. 이것도 고딕 때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 이후에는 많이 도시가 커지지 못하여 쇠퇴하여 작은 도시지만 중세 때는 중요한 도시였어요. 독일 고딕 연구하려면 꼭 가야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성 십자가 성당. 여기서는 오른쪽 슈베 부분, 성가대석 있는 그 부분이 여기서는 홀교회로 처리되었단 얘기에요. 그 슈베부분의 모습이 [그림1041]. 그리고 네이브와 아일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1042이]죠.

중심부의 큰 게 네이브 천장이고 아래쪽 보면 아케이드의 포인티드 아치 너머 저 속에 아일 천장이 보이는데 두 천장의 높이가 같아 지금.

뉘른베르크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뉘른베르크의 성모 마리아 교회는 [그림1043]. 이것도 홀 교회였는데 이것은 내접형 그릭 크로스. 그래서 9등분된 천장 높이가 모두 같았단 얘기에요. [그림 1044, 1045]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홀 교회를 융성하게 했던 요인이 수도회였어요.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교회들이 특히 홀 교회를 좋아했단 얘기에요. 이 두 수도회는 검소한 건물을 선호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장 높이도 높이 안 올라가고 네이브 월도 1단구성으로 단순한 구성을 갖는 홀 교회를 좋아했다는 얘기에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 다음에 울름성당이 이때 지어진 중요한 성당인데 14세기 때 시작되서 15세기까지 이어진. 처음엔 홀 교회로 구성되었다가 나중에 바실리카 구성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홀 교회의 잔재가 남아있는. 천장 높이는 네이브와 아일이 차이가 나서 천측창은 있어. 그런데 아일 높이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단 얘기에요. 보통의 표준 구성에 비해서. 그래서 홀교회 근접하고 있고.

그 결과 아케이드 높이가 상당히 높고 천측창이 굉장히 작아. 이것은 조도가 균등하게 나타난단 얘기에요. 아케이드 높이가 높기 때문에 1층 아일 외벽에서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고 천측창이 작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이 작아져 조도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홀 교회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홀 교회는 천측창이 없죠. 네이브와 아일 사이의 천장고가 똑같기 때문에 조도는 전부 아일 외벽에서 들어와 아케이드를 통과하는 간접광으로 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홀 교회에서는 실내조도가 균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네이브 쪽에서는. 상하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울름은 다시 높이 경쟁에 뛰어든 15세기. 천장고는 42m인데 탑이 유명해. 높이가 162m. 탑으로면 치면 고딕 건축 중에서 가장 높은 거에요. 그리고 울름 성장 앞에는 리차드 마이어 건물이 하나 서있지요. 그래서 이 울름 성당과 아주 대비되는 리차드 마이어 그 흰 백색 순결주의 건물이, 울름성당과 극적 대비를 이루며 서 있어요.

홀 교회의 다른 중요한 예가 뮌휀에 있는 성모마리아교회. 1053 1054. 1054보면 네이브와 중간에 양쪽 아일이 단일기둥에 의해 단일 높이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 14세기-뤼베크, 뉘른베르크, 팔러가

14세기는 이제 뤼베크와 뉘른베르크가 중요해졌단 얘기에요. 뤼베크는 독일 북부지방. 한자동맹의 중심도시로서 신성 로마제국의 간섭을 안 받는 자유 무역도시로 분리해 나오는데 성공했단 얘기에요. 그래서 기독교나 신성로마제국 양쪽에서 모두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시민과 상인이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도시도 보면 성당은 남쪽 끝으로 밀려나고, 6개의 큰 교회가 도시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었단 얘기에요.

[그림 1055] 지도의 아래를 보면, 그게 뤼베크의 중세 골격인데.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성당이에요. 빨간 건물. 범례의 2번 두오모가. 중심부는 오히려 3번. 빨간 건물이 3번이고 파란 건물이 8번. 빨간 건물이 산타마리아. 파란 건물은 시청사. 그러니까 시청사와 성당이 아닌 교부 교회급의 성모마리아가 중심부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이 도시의 당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이고.

지역특징으로는 벽돌을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림1057]이 성모마리아교회. 대부분의 표준 양식들은 화강석으로 지어지는데 지역양식들은 벽돌을 많이 사용해. 그래서 유럽에서도 벽돌은 상당히 의미가 독특한데 그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북부 독일지방이 특히 함부르크나 뤼베크 이쪽이 중세 때 벽돌 공장이나 장인들이 많이 있었고. 보통 재료의 관점에서 벽돌이 지역성을 대표한다면 중세 고딕 때에 뤼베크와 함부르크를 중심으로한 북부독일이 대표적인 예에요.

그 다음에 장식처리 이런 내용들이 이 뤼베크의 대표적인 예였고요.

뉘른베르크는 칼 4세 때, 카를 4세가 매우 아꼈던 도시이죠. 카를 4세는 룩셈부르크 왕가 출신이었는데 뉘른베르크와 프라하로 이어지는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야심이 많았던 인물이고.

그래서 뉘른베르크에 지원을 많이 해서 중요한 건물을 많이 지었죠. 그 이후에도 성장을 많이 하여 독일 동남부지방의 큰 도시이고요. 도시 중심부에 가면 중세 골격이 잘 남아있고. 그 뒤에 르네상스 바르크로 이어지는 상당히 긴 시간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중 하나이죠.

드레스덴이 2차 대전 때 도시가 완전 하나도 안남을 정도로 폭격을 받은 것에 비하여 뉘른베르크는 비교적 잘 피해갔어.

그래서 뉘른베르크는 고딕 때 융성한 도시였고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성모마리아 교회라는 것이지요. 중세 때 뉘른베르크 전경이 1065. 이미 큰 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했었고요. 그 중심부에 주요 교회들 이름이 붙어있는데. 앞에서 성모마리아 교회 평면은 잠시 나왔었어. 중앙집중 홀 교회에서.

평면과 실내 모습은 앞에서 봤었고. 외관이 지역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1066 1067. 일단 출입구가 단일 출입구에요. 프랑스의 출입구는 3개였는데 여기서는 단일 출입구가 되고 규모가 작아지면서. 그리고 박공면. 박공면을 이렇게 계단형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관광책자에서도 많이 보던, 민간 건물에서도 잘 쓰이던 독일의 지역특성이 잘 담인 전통적인 파사드 다루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각 한 단을 보면 아치로 다시 구획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롬바르디아 밴드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2강 독일과 이탈리아 고딕

2교시 이탈리아 고딕

▲ 로마네스크와 고딕 사이

이태리고딕. 이태리는 독일보다 더 힘들게 고딕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비슷해요 두 나라가. 전부 로마네스크 전통이 강한.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먼저 완성된 양식을 수입해야하는 문제. 거기에다 이탈리아 로마의 고전 전통, 로마네스크도 아니고 로마 자체의 고전 전통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고딕과 융합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중세 문화는 이러한 로마나 고전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바꿔 얘기하면 고전과의 융합, 고전과 기독교의 통합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중세 문명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내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이나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

딱 하나에요.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그 정도로 중세 기독교 건축이 자리 잡기가 어려웠단 얘기지. 워낙에 고전의 기존 골격이 많이 남아있어서.

분명히 기독교 적으로는 중세 때 로마 교황청이 중세기독교의 총 본산이었지만 적어도 건축 양식으로 볼 때에는 초기 기독교 양식까지는 로마 시대 때 많이 지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초기 기독교 양식은 곧 로마 양식이었으니까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는데 고딕으로 오게 되면 이것이 프랑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받아들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고딕 건축을 처음 접한 것은 12세기 시토회를 통해서였다는 것이 통설이고요. 건축 양식은 정식 고딕도 아닌, 부르고뉴 지방의 후기 로마네스크였어요. 그런데 이 후기로마네스크 때 이미 프로토-고딕 형식으로서 고딕 어휘가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 고딕건축을 어휘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에요. 유기 구조 방식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탈리아가 프랑스 고딕을 쉬운 양식으로 여기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굉장히 오랜 노력의 산물로 프랑스 고딕이 완성된 것이었는데 이것을 어휘 중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고딕 건축을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었죠.

이것은 독일과 비슷하면서도 또 독일과 다른 이탈리아만의 상황이 반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고딕은 독일보다도 더 로마네스크와의 연속성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플라잉 버트레스도 거의 잘 안 쓰였어요. 쓰이더라도 구조적 목적보다는 장식적 목적 등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런데 독일 고딕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시작되어 쾰른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수입 통로가 있었는데 이태리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 하나는 산갈가노 수도원 교회. 기둥 등에서 고딕을 받아들였고. 두 번재는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 교회 1081. 이것도 파리에 있는 생트샤펠과 마찬가지로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 1082]가 단면도인데, 1층은 워낙 지하실 개념이기 때문에 천장이 낮을 수밖에 없고 생트샤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2층이 고딕양식이 제대로 구현된 부분인데 [그림1082]에서 위층 부분에 해당하는 실내 모습이 [그림 1080]이에요. 평면이 [그림1081]. 그래서 1080보면 포인티드 아치는 사용되고 있지만 그 뾰족한 정도가 굉장히 둔해져있고. 실내 골격을 보아도 1랑식 단일 공간이며 벽도 프랑스 고딕에 나타난 네이브 월의 벽 구성이 없어요 그죠? 거의 단일 구성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로마네스크 전통, 더 나가면 로마 전통 심지어 고전주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림1080]의 장면이 이후 이탈리아 고딕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637페이지에 베르칠리의 성 안드레아인데 이것은 [그림1080]과 비교해 보면 조금 프랑스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이브 월을 보면 2단 구성으로 분할되어 있고 평면도 3랑식이고 리브도 천장에 사용되고 있고. [그림1080]은 리브가 구조역할을 거의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리브가 구조 역할을 할것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겉모양만 그러하고 거의 다 장식 요소란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베르첼리의 성 안드레아는, [그림1080]은 고전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탈리아 고딕의 예이고. [그림1083], 이것은 1080에 비하여 프랑스 고딕, 프랑스의 예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 예가 수용될 수 있는 한계 정도를 보여주는 예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 고딕이 이정도 이상으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 프랑스 고딕을 수입한 예들에서부터 보면 향후 이탈리아 고딕의 전개 방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났단 얘기에요.

▲ 도미니크회와 프란치스코회

그 다음에 이탈리아 고딕에서도 이 수도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도미니크회와 프란치스코회는 모두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수도회이기 때문에, 이 두 수도회는 이탈리아 고딕의 정착 형성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데 이 도미니크회와 프란치스코회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고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탈리아 고딕이 프랑스 고딕을 수입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과 일정부분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극기주의를 기본 강령으로 삼은 두 수도회의 교회들이 부재 사용이 많은 프랑스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딕과 안 맞는 측면이 많았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 수도회를 중심으로 프랑스고딕을 받아들일 때 많이 단순화하여 받아들이는 장면이 많이 나타났단 얘기고요.

그래서 볼로냐의 성프란치스코 이런 것이 프란치스코회의 극기주의 강령을 잘 반영된 예란 얘기죠. 그 모습을 보면 [그림1086]의 외관. 외관은 자잘한 분절이 생략된 채 큰 매스단위로 구성이 되고.

실내를 보면 볼로냐의 성프란치스코나 피렌체의 산타마리아노벨라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고딕 건축을 대표함과 동시에 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회같은 수도회를 대표하는 건물들이기도 한데. 장면들이 보면 비슷해.

[그림1087]이 볼로냐의 성프란치스코이고 [그림1088]이 피렌체의 산타마리아노벨라인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다시 무엇과 비슷하냐면, [그림1083]과 비슷해. 결론적으로 이 구성에서 크게 못 벗어난 상태. 1083에서 크기를 키운 정도.

이것이 이탈리아 고딕의 특징이자 한계라 할 수 있는 점이고요.

▲ 13세기- 피렌체와 시에나

이탈리아도 도시 국가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고딕도 도시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요. 13세기-14세기까지는 피렌체와 시에나 각축을 많이 벌였어. 로마네스크 때에는 피렌체와 피사가 경쟁을 했고, 이 13, 14세기 고딕시대에 오게 되면 피사는 피렌체의 외항으로 많이 종속이 되고 오히려 내륙 쪽의 시에나와 많이 경쟁이 되요. 이 도시의 라이벌 관계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시에나 성당 같은 경우가 이 때 지어진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림 1093, 1094]를 보면 어휘들은 상당히 표준어휘에 가깝지만 규모로 보았을 때는 거의 로마네스크 골격에 머물러 있고. 실내도 보면 2단 구성인데 중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어 강한 수평띠에 의해서. 그다음 평면을 보며 크로싱 천장을 돔으로 막은 처리들이 고전 잔재, 비잔틴의 잔재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14세기에 오게 되면 피렌체 성당이 대표적인 예가 돼. 시에나 성당, 피렌체 성당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피렌체는 이탈리아 로마네스크에서 봤을 때도 얘기했지만 장식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토스카나 지방의 중심이었고요. 이 경향이 계속 남아 이탈리아 고딕에서도 장식 중심으로 갔죠. 대표적 예가 [그림 1103, 1104]의 피렌체 성당.

실내는 여전히 초창기의 선례를 못 벗어나고 있고.. 그림 1103, 1104보면 빨간 지붕, 동그란 모자를 쓴 것과 같은 그것이 돔인데. 1106 평면에서 크로싱 부분의 팔각형 돔. 이것은 나중에 부르넬레스키가 여기다 증축을 해요.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래서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을 보고 다시 시에나가 조바심이 나서 648페이지 보면 성당 증축과 시민회관을 짓고 그 담에 피렌체는 또 [그림1109]의 산타크로체를 짓고. 이러면서 두 도시가 경쟁을 하며 고딕건축을 이끌어간 측면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림1108]의 네이브 월을 보면 고딕 건축의 원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특히 천장을 보면 목조천장이에요.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천장을 막지 않았는데, 이것을 막으면 바로 평천장이 되는.. 이런 것은 수도회의 극기주의 강령의 검소한 경향을 쫓은 예로 볼 수 있고요.

▲ 14세기- 토스카나와 장식 고딕

그 다음에 장식주의. 14세기 장식주의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내용인데. 650페이지를 보면 개인 예술가로서의 화가와 조각가의 등장. 이것은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전까지는, 중세 미술까지는 화가 이름은 등장을 안 해, 장면은 등장하지만.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미술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가 전문 예술가로서의 건축가가 등장 하는 게 르네상스 때에요. 부르넬레스키가 첫 스타트를 끊고.

회화 미술사를 보면 건축사보다 조금 빨라서 중세 말기에 조토giotto이런 사람들이, 이 전까지의 이름 없는 장인들이 이끌어오던 미술을 이러한 전문 예술가, 자기 이름을 내건 전문 예술가들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건축보다는 빠르지만 보통 르네상스보다 중세 말기 때부터 나타나는데 미술사에서는. 이것은 또 문명 전체로 보면 그 시기를 르네상스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이 이탈리아 고딕의 말기 14세기 토스카나 지방의 장식주의. 이것이 14세기에 오면 페트라르카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인문학이나 문학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시기에요. 이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 중세 말기의 장식주의와 르네상스의 작가주의가 중첩이 되면서 나타난 것이 이러한 장식경향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끈 도시들이 피렌체와 시에나예요. 이 도시들은 건물에서만 경쟁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을 서로 돈 주고 데려가는 데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였단 얘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르톨포 디 캄비오는 피렌체 성다오가 산타크로체에, 조토는 피렌체 성당에 참여하면서 피렌체의 자존심을 높였고 여기에 뒤질세라 시에나에서는 조반니 피사노라는 쟁쟁한 거장이 성당공사에 참여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남긴 작품이 주요 성당의 껍질과 실내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 후에는 화가들이 캔버스에다가 독립작품을 그렸는데, 이시기까지는 아직 그런 작품 보다는 성당의 부속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미술사에서 보면 미술이 건축에 종속되는 것은 중세까지이고 건물과 미술이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건물 내부에 성화를 그리고 조각을 새기던 작업에서 벗어나서 캔버스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다 독립적으로 그림을 그리도 하던 것이 르네상스부터인데.

어쨌든 [그림1114, 1115, 1116,] 이런 게 다 [그림1115]도 보면 건축만 놓고 보면 이탈리아 고딕 양식이지만, 미술 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이지요. 이런 알록달록한 색채들이 있는 장면들은 전부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가 중첩되면서 나타나게 된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중앙 박공. 제일 높은데 있는. 그래서 [그림1115]에서 중앙 박공에 있는 그림을 크게 확대한 것이 [그림1116]. 이런 게 다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건물들이죠.

▲15세기 거대주의

이게 장식주의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고 마지막 15세기로 오게 되면 중심지가 베네치아로 넘어가고, 이때 되면 거대 주의라고 하여 건물들이 커져. 베네치아는 뒤늦게, 비잔틴 제국이 베네치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15세기가 되면 비잔틴이 완전히 망하는 시기다 되고. 그러면서 유럽의 중세양식이 뒤늦게 베네치아에서 싹트게 되는데 이 시기면 피렌체와 로마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완성되어가던 시기로 중세의 끝자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때가 되면 인본주의 이런 것이 싹트면서 인본주의 ,기독교도 남아있지만 고딕시대와 같이 막강한 권력은 잃게 되면서 특히 이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지중해 연안 동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세속 권력이 급속히 커졌어요.

교회 뿐만 아니라 총독궁, 베네치아 가면 꼭 한번 들러보아야 하는, 산마르코 광장의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 1122]. 그 왼쪽에 작게 나온 것이 산마르코이고, 오른쪽에 포인티트 아치를 넣어 길게 나온 분홍색 건물이 총독궁이죠, 팔라초 듀칼레.

그래서 이때 되면 또 거대주의, 자이언티즘이라고 하여 밀라노 성당, 볼로냐의 산페트로니오. 이런 무의미한 대형 건물들이 세워져요. 밀라노 성당은 투어리즘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건축사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될 뒤늦은 시기에 무의미한 거대주의를 대표하는 건물이에요.

654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요. 1386년부터 건축가, 수학자, 화가등 각 분야 대표자들을 모아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 높이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아. 천장고가 45m. 폭은 72.8m. 고전적 거대공간을 넘어 고딕적 거대공간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밀라노 성당은 화려한 건축 장식이 있어요. 앞에 본 회화를 배경으로 한 미술 장식이 아니라 건축 장식들 [그림 1127]과 같은. 아주 작은 규모의 건축 부재들이 수도 없이 채워진 걸로 유명하다는 얘기고요.

비슷한 경향이 볼로냐의 산페트로니오인데 [그림1131]보면 알겠지만, 밑 부분부터 대리석으로 쌓아오다가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채 남아있는 거야 그 위쪽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런데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스카나지방의 대리석 장식주의 모습은 보여줄지언정, [그림1127] 장면과 [그림1132] 장면을 비교하면 볼로냐의 산페트로니오는 대리석 색깔 처리를 이용한 장식은 했을지언정 부재는 단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원의 면 위에 대리석을 이용하여 장식처리를 한 정도이지만 1127은 3차원 건축 디테일들이 정말로 빼곡이 빈틈없도록 채워 넣은 모습이고요. 이런 점에서 대별도 되지만 자이간티즘이라고 하는 거대주의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기도 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중세편을 끝내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